

바이오 투자, 먼저 볼 기업과 기다릴 기업

핵심 10개 기업 + 혁신 후보 3개. 원본 122쪽을 투자 행동 중심으로 압축했습니다.

미국은 버텍스·길리어드, 한국은 SK바이오팜부터.
기존 약으로 돈을 벌면서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을 우선 봅니다.

01 먼저 공부하고 분할 검토

버텍스 VRTX

신장 신약 허가가 가까움. 기존 낭포성섬유증 약이 실적 기반.

길리어드 GILD

HIV 사업 위에 장기지속형 약·혈액암 치료제 추가.

SK바이오팜 326030

엑스코프리 미국 처방이 늘면 이익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02 실적 숫자가 좋아질 때 접근

앨나일랩 ALNY - RNA 약 매출·전망 회복.

유한양행 000100 - 렉라자 판매 로열티 증가.

에스티팜 237690 - 올리고 수주와 공장 가동률.

03 가격 또는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림

릴리 LLY ·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성장 지속을 확인하면서 가격 조정을 기다릴 후보.

알테오젠 196170 · 아르젠엑스 ARGX

각각 특허분쟁 영향과 임상 실패 이후 재평가가 먼저.

이 구분은 사업·임상 기준의 분석 판단입니다. 최신 주가로 목표가·할인율을 재계산한 매수순위는 아닙니다. 근거는 3~6쪽에서 확인하세요.

달력에 넣을 핵심 이벤트

촉매 = 기업가치 판단을 바꿀 임상 결과·허가 결정. 날짜는 회사 공지 기준입니다.

2026.10.23

엘나일랩 | ALN-HTT02

헌팅턴병 1상 첫 데이터. 안전성과 표적 감소 확인. 초기 신호이지 치료 효과 확정은 아님.

공식 학회 일정 · 공식 근거

2026.11.30

버텍스 | 포베타시셉트

IgA 신장병 FDA 결정. 승인 여부뿐 아니라 사용 조건·후속 확증 의무도 확인.

FDA 목표일 · 공식 근거

2026.12.23

길리어드 | anito-cel

혈액암 CAR-T(면역세포 치료) FDA 결정. 허가 뒤 생산·치료센터·환자 접근성이 매출을 좌우.

FDA 목표일 · 공식 근거

2026년 4분기

아르젠엑스 | empasiprubart

다초점 운동신경병 확증 결과. 기존 치료보다 기능·치료 부담이 개선되는가?

회사 전망 · 공식 근거

2027.02.02

길리어드 | 주 1회 경구 lenacapavir

HIV 예방 적응증 FDA 결정. 예방약이며 HIV 완치약이 아님.

FDA 목표일 · 공식 근거

2027.03.10

인텔리아 | lonvo-z

유전성 혈관부종 유전자편집 치료 FDA 결정. 기업가치 영향과 실패 충격 모두 큼.

FDA 목표일 · 공식 근거

2027년 1분기

릴리 | 레타트루타이드

비만약 허가신청 계획. 신청은 승인과 다름.

회사 전망 · 공식 근거

2027~2028년: 한국 실적형·CDMO는 분기 매출과 가동률을 추적합니다. 임상 등록상의 완료일은 결과 발표일이 아닙니다. FDA 목표일은 연기·보완요구가 가능합니다. 확인: 2026.10.12.

미국은 이 세 기업부터

공통점: 초기 임상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이미 판매 중인 약이 있습니다.

버텍스 VRTX | 균형형 1순위

기존 주력약의 수익에 신장 치료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왜 볼까 낭포성섬유증 치료제 매출이 기반. 포베타시셉트가 승인되면 새 질환 시장으로 확장합니다.

확인·귀속 11/30 FDA 결정, 2027년 초 inaxaplin 중간결과. 두 후보의 제품 사업은 버텍스에 귀속됩니다.

접근·위험 발표 전에는 작게 나눠 검토. 승인 뒤 처방·보험을 확인하며 확대 여부 판단. 경쟁과 허가 지연에 주의.

근거 [Q2 공시](#) · [FDA 접수 공지](#)

길리어드 GILD | 현금흐름 기반

HIV 사업이 버티고, 신규 예방약과 혈액암 약이 더해집니다.

왜 볼까 기존 HIV 제품 판매 기반에 anito-cel과 장기지속형 HIV 약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확인·귀속 12/23 anito-cel, 2027년 2/2 경구 예방약 결정. anito-cel은 Arcellx 인수 후 길리어드 사업입니다.

접근·위험 분할 검토 후보. CAR-T 경쟁·제조 비용과 인수 지출을 확인. 대형사여서 임상 성공의 주가 탄력은 작을 수 있습니다.

근거 [Q2 실적](#) · [anito-cel 일정](#)

앨나일램 ALNY | 매출 회복 확인형

뇌질환 1상보다 기존 RNA 약의 판매가 우선입니다.

왜 볼까 RNA 간섭은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생산을 줄이는 기술. 이미 상업 제품과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확인·귀속 10/23 헌팅턴병 첫 데이터. 본업은 심장·신경에 단백질이 쌓이는 병의 치료제 판매이며, 계약상 지급액은 따로 차감합니다.

접근·위험 회사가 낮춘 2026년 주력 제품 매출 전망의 달성·회복을 먼저 확인. 초기 뇌질환 결과 하나로 본업 가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근거 [Q2 실적](#)·[임상 일정](#)

한국은 처방·로열티를 보세요

전체 신약 매출과 한국 기업이 받는 돈은 다릅니다.

SK바이오팜 326030 | 국내 우선 검토

새 임상 뉴스보다 엑스코프리 처방과 이익이 먼저입니다.

사업 뇌전증 약 세노바메이트를 미국에서 XCOPRI로 판매. 2026년 2분기 회사 발표 영업 이익은 971억원입니다.

돈의 흐름 미국 자회사 직접 판매가 연결 실적에 반영됩니다. 해외 파트너 지역은 계약별 매출·로열티 구조가 다릅니다.

접근·위험 분기 처방·미국 매출 증가가 판촉비 증가를 넘어서는지 확인하며 분할 검토. 단일 제품 의존·특허·신규 개발비가 위험입니다.

근거 [8/5 실적 발표 목록](#) · [공식 IR](#)

유한양행 000100 | 로열티 성장형

렉라자가 잘 팔릴수록, 유한에 남는 몫이 커져야 합니다.

사업 특정 유전자 변이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을 J&J 계열 파트너가 해외에서 다른 약과 함께 사용하는 요법으로 판매합니다.

돈의 흐름 2026년 5월 유럽 상업화 마일스톤 3천만달러 수령 예정 발표. 판매 로열티는 별도이며, 원개발사 정산 후 순기여를 봅니다.

접근·위험 계약 뉴스보다 반복 로열티가 늘어나는 분기 실적에 주목. 병용요법 전체 매출을 유한 매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거 [5/14 공식 발표](#)

알테오젠 196170 | 확인 후 접근

피하주사 전환의 매력은 크지만, 지금은 특허 영향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업 ALT-B4는 정맥주사 약을 피하주사로 바꾸는 기술. 키트루다 항암효능 자체를 새로 만드는 기술은 아닙니다.

돈의 흐름 제품 판매는 머크, 알테오젠에는 계약상 마일스톤·로열티·공급 매출. 비공개 요율은 추정 사실로 쓰지 않습니다.

접근·위험 10/8 회사 설명상 유럽 일부 지역 가처분 영향이 있습니다. 실제 판매 제약·후속 법적 결정·로열티를 확인한 뒤 검토합니다.

근거 [10/8 회사 설명](#)

공장에 돈이 남는 시점

CDMO는 다른 회사의 약을 개발·생산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주와 매출 인식 사이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

공장 숫자보다 새 공장에 물량이 차는 속도를 보세요.

성장 논리 항체 의약품 생산 기반. 5공장 가동 확대와 미국 Rockville 시설이 장기 생산 기회를 넓힙니다.

확인할 숫자 신규 계약의 매출 전환, 5공장 생산 공정 검증, 가동률, 영업이익률. 누적 계약금액은 남은 수주잔고가 아닙니다.

접근·위험 조정 때 검토하되 분기 이익으로 확인. 증설·인수 비용과 감가상각이 먼저 늘면 매출 증가에도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거 [Q2 회사 실적·시설 현황](#)

에스티팜 237690

RNA 치료제가 커질 때, 원료 생산 주문이 늘어나는지 보세요.

성장 논리 올리고는 RNA 계열 약을 만드는 짧은 핵산 원료. 자체 신약 성공과 CDMO 수익을 분리해 봅니다.

확인할 숫자 실제 수주 공시, 상업용 물량, 신규 설비 가동률과 이익. 비공개 고객을 애플리케이션 등 특정 신약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접근·위험 수주가 이익으로 확인될 때 검토. 최신 수주·가동률은 이번 압축 작업에서 재검증하지 않아 확정 수치를 신지 않았습니다.

근거 [원본에 수록된 공식 사업 링크](#)

이익이 커지는 순서

1. **시설 완공** 사람·설비 비용이 먼저 발생합니다.
2. **공정 검증·고객 승인** 품질 확인 단계. 바로 대량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상업생산·가동률 상승** 생산량이 늘어 고정비를 분산하면 이익 개선이 가능합니다.

생산 수혜의 원칙: 특정 신약과의 계약이 확인돼야 직접 수혜로 셉니다. 중국 공급망 재편도 자동 수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도 기다릴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 전망과 현재 주식의 매력은 따로 판단합니다.

일라이 릴리 LLY | 조정 시 검토

비만약 경쟁력은 강합니다. 다만 성공 소식만 보고 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상 근거 레타트루타이드 3상 TRIUMPH-3에서 80주 체중 변화는 12mg군 -22.6%, 위약 -3.2%였습니다.

다음 확인 회사 계획은 2027년 1분기 허가신청. 이후 허가 조건, 공급능력, 보험 적용, 지속 복용을 확인합니다.

접근·위험 실적 전망이 유지되는 주가 조정에서 검토. 위장관 부작용·중단률·경쟁·약가 부담이 있습니다. 체중감량이 심혈관 사건 감소의 입증과 같지는 않습니다.

근거 [7/23 3상 결과](#)·[신청 계획](#)

아르젠엑스 ARGX | 원본 판단 수정

기존 약은 남아 있지만, 한 질환의 성공을 다른 질환에 복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10월 8일 쇼그렌병 UNITY 3상 중단 발표. 중간분석에서 효과 입증 가능성이 부족했고 새 안전성 신호는 없었습니다.

남은 확인 기존 VYVGART 매출과 2026년 4분기 empasiprubart의 다초점 운동신경병 결과는 별도로 평가합니다.

접근·위험 원본의 높은 종합점수를 그대로 매수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실패 가치가 얼마나 빠졌는지와 남은 임상 결과를 확인한 뒤 접근합니다.

근거 [10/8 중단 공지](#)·[잔여 임상 일정](#)

중요 정정: 원본의 “쇼그렌병 2027년 하반기 결과 예정”은 삭제했습니다. 이 압축본의 일정·판단이 해당 항목의 원본보다 우선합니다.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않을 3가지

- ① **효과 실패:** 투자 논리가 훼손됐는가?
- ② **허가·특허 문제:** 해결 시점과 판매 영향이 보이는가?
- ③ **현금 부족:** 다음 결과까지 버티며 증자를 피할 수 있는가?

게임체인저는 별도 관찰하세요

아래 표시는 분석상 혁신 후보이며 FDA 공식 지정과 다릅니다. 혁신성과 투자수익은 별개입니다.

개인맞춤 암백신 V940 | MRNA·MRK

환자 암의 특징을 읽어, 면역세포에 공격 대상을 가르칩니다.

어디까지 2026년 8월, 수술 후 흑색종 3상에서 재발·원격전이 지표 개선을 회사가 발표했습니다. 모든 암의 예방백신은 아닙니다.

다음·돈 상세 효과 크기, 허가신청, 제조·공급 계획 확인. 기존 계약상 개발비·이익은 모더나와 머크가 50:50 분담합니다.

접근 성공 발표는 이미 지난 재료. 세부 자료와 허가·원가를 본 뒤 검토합니다. 암백신 이익과 키트루다 매출은 별개입니다.

근거 [8/19 3상 발표](#) · [공동개발 계약](#)

체내 유전자편집 lonvo-z | NTLA

반복 치료가 필요했던 질환을 한 번 투여로 오래 억제하는 목표입니다.

어디까지 유전성 혈관부종 대상 3상 후 FDA 심사 중. 결정 목표일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

왜 중요한가 몸 안에서 유전자를 편집하는 치료의 상업화를 시험합니다. 장기 안전성·효과 지속·생산·보험이 모두 중요합니다.

접근 고위험 후보. 승인 전 큰 비중보다 결과 확인 후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한 번 투여가 평생 완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9/8 FDA 접수 공지](#)

인슐린 생성 세포 zimislecel | VRTX

손상된 기능을 대신할 세포를 넣어, 1형 당뇨 치료 부담을 줄이는 목표입니다.

어디까지 1/2/3상 프로그램 진행. 회사 Q2 공시상 환자 등록·투여 중이며 수정 일정 발표 예정입니다.

접근·위험 초기 검증·고위험 후보. 면역억제 부담·장기 생착·제조가 관건. 현재 버텍스의 핵심 이익으로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Q2 임상 업데이트](#)

그래서, 언제 접근할까?

임상 발표를 맞히는 것보다 결과·가격·현금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 전과 발표 후, 얻는 것이 다릅니다

발표 전 접근

성공 뒤 가격 상승을 먼저 누릴 수 있습니다. 대신 실패하면 장 시작부터 크게 내려 손절 주문도 원하는 가격에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후 접근

급등분 일부를 놓칠 수 있지만, 효과·안전성·허가 조건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는 제목만 보고 추격하지 않습니다.

실적형·CDMO 접근

임상 날짜보다 처방·로열티·수주·가동률 개선이 중요합니다.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더 빨리 늘면 접근 논리를 다시 봅니다.

주문 전에 확인할 4문장

- 성공해도 기대가 이미 가격에 대부분 들어간 것은 아닌가?
- 실패해도 본업 매출과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가?
- 전체 시장이 아니라 이 회사에 남을 이익은 얼마인가?
- 다음 발표의 날짜·시험명·평가지표가 정확히 맞는가?

출처와 조사 한계

기본 자료: 기존 「미국·한국 제약·바이오·CDMO 임상 촉매와 투자 타이밍」 122쪽 보고서. 이번에는 관련 기업·일정·계약을 선별하고 주요 공식 자료를 2026.10.12에 재확인했습니다. 각 쪽의 밑줄 링크가 근거입니다.

전수 재조사·현재가 재평가·목표주가 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본의 100점 순위와 매출 시나리오는 검증 범위 차이 때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에스티팜 최신 수주·가동률, 한국 기업의 현금·부채 전수 검증, 알테오젠 법원 원문 검토는 미완료입니다. 알테오젠 소송 설명은 회사 입장입니다.

일정의 연도·분기는 회사 전망이며 확정 결과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투자 참고용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